

## PREVIEW

이세준 개인전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  
Lee Sejun solo exhibition <What will it burn?>

전시기간 | 2015. 11. 26 목 - 2015. 12. 16 수  
오프닝 리셉션 | 2015. 11. 26 목 18시  
아티스트 토크 | 2015. 12. 12 토 16시



©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세준 작가의 개인전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를 개최한다. 이세준 작가는 '세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화려한 색채와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표현한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 라는 물음은 세계의 일부분 모습을 보여주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을 표현하려 하는지, 혹은 무엇을 태워서 없애버리고 싶은지를 동시에 묻고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이세준 작가는 이번 신작들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내 생각에 나의 작업은 언제나 모호함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 같다.  
말장난 같지만, '모호함'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한 주제와 태도와 표현방법이 결국 어느 곳으로도 범주화되지 못하는 모호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 작가 노트 中 -

## © 인터뷰

Q. 흘러내리고 뭉쳐지는 듯 그로테스크한 인물의 표현과 숲속의 풍경 등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작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등장하는 사람의 질감은 내장(內臟)의 그것에서 가져왔습니다. 제 그림에서 풍경은 하나의 심리적 장소입니다. 정말로 존재하는 곳은 아니지만 마치 보기에 풍경 같은 그런 거죠. 숲 뿐 아니라 정글, 늪, 도시, 건물의 내부 등 다양한 공간을 등장시키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숲, 정글, 늪.."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거죠. 이런 배경은 등장하는 소재들에 따라 정합니다. 서로 어딘가 어울리지 못하는 이질감을 도드라지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Q.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캔버스에 걸쳐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며, 관객은 그 여러 가지 캔버스가 모여서 만드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화폭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가님이 의도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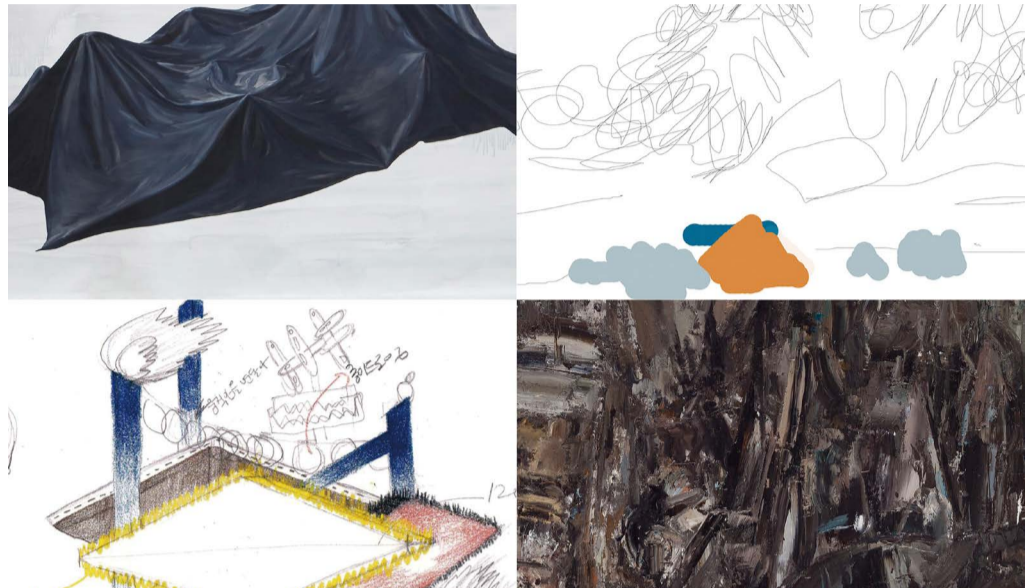
A. 처음 캔버스를 확장해 가며 작업했을 때는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회화를 만들어서, 본질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세계를 비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언제나 주변부일 수밖에 없는데 그림도 그런 식으로 보여지면 조금 마음이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주인공만 등장하고 주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축약하거나 아예 거세해 버리는 태도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태가 직사각형이 아닌 것이 그려진 회화 너머의 것을 더 능동적으로 상상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꾸준히 일관성 있는 회화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작가 본인에게 그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작업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방법, 혹은 규칙이 있나요?

A. 원근법, 색의 사용, 형태, 질감, 칠하는 방법, 등장소재를 선택하는 법 등, 회화의 구성요소 대부분을 스스로 만든 규칙에 따라 그려나갑니다. 저(작가)의 세계관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이 규칙들은 때론 모호하기도 하고 서로 모순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규칙들의 모순이 이 세계랑 닮은 것 같아서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PT & Critic - 2013 Reunion  
구민정, 김영민, 노은주, 한성우

전시기간 | 2015. 12. 22 화 - 2016. 1. 17 일  
오프닝 리셉션 | 2015. 12. 22 화 18시  
PT & Critic | 일정 및 패널 추후공지



©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신진 작가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 2회의 <PT & Critic>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3년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새로운 작업들을 감상하며 그간 변화과정을 겪어온 그들의 작품 세계에 대해 들어보며 젊은 세대 작가들의 예술에 대한 철학을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 인터뷰

Q. 모두 회화 작업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인의 작업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세요.

A. 노은주 : 당연히 들릴지 몰라도 그 의미를 찾아가는 자체가 지금은 하나의 작업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나의 경우 대부분의 작업에서 조각적인 형태들이 등장한다. 이전에는 그림의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시간성에 주목했었다. 내가 만들어낸 구조물들의 일시적인 시간은 그림 안에서 견고한 시간성을 가지게 된다. 역설적으로 구조들의 연약한 상태들이 드러나길 원했다. 현재는 그리기 과정에서 어떠한 결정들로 사물의 형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주목한다. 최근의 작업들에서 도시의 구축과 해체 순환 과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기-지우기 과정으로 연결된다. 내가 만들어내는 형태들은 외부에서 발견한 풍경의 일부이다. 사물단위로 복잡하게 구성된 풍경에서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A. 한성우 : 나에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그리고자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려야 하는지, '대상'과 '방법'에 대한 질문의 과정이자 그 같은 질문을 가시화 하는 구체적, 신체적 행위 혹은 표현이다.

A. 김영민 : 지금의 내 앞에 놓인 그림이 아무리 완성이라고 해봐도 내가 담아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포괄성도 궁극성도 없는 일순간의 가시적 환상으로 여겨질 뿐이다.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을 그려야 할 이유도 없고 말해줄 수 없는 것을 그린다라는 것은 내게 있어 순간의 잔류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내 성향일 수도 있고 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일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내가 가진 회화적 성향/관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의 방식을 선택했다. 말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내용, 정신, 무의식, 재료의 물성 등의 요소를 포함한 전통적 그리기 방식을 포기하고 화면 구성에 치중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미지를(나 자신의 드로잉이든 낙서든 사진이든) 트레이싱한다. 이런 방식은 어린아이가 동전 위에 종이를 놓고 색칠을 하듯이 유희적으로 그리기를 할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방식이 이전에 공개한 작업이라면 이번 작업은 그리기의 완성에 대한 행위를 보여줄 것이다. 즉 완성에 의미를 둘 수 없는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A. 구민정 : 나는 올해 초부터 노량진에 거주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집이자 작업실은 30년이 넘는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나의 외갓집이다. 이집이 있는 주택가는 재건축이 성사될 번 하다가 무산된 적이 여러 번 있고, 이 근방의 풍경은 오래된 건물들과 새로 만들어 지고 있는 것, 새로 만든 것들이 혼재해 있는 그런 곳이다. 대표적인 예로 노량진수산시장이 그렇고, 역 앞 고가다리도 몇 일전 철거되었다. 이곳에선 포크레인이 땅을 헤집고, 건물은 폭파되는 마치 영화 같은 장면들이 자주 일어난다. 구청 옆에 사는 나는 매일 아침 재건축에 반대하는 상인들의 시위를 보고 듣는다. 이와는 대립되게 얼마 전 여의도 불꽃축제의 화려한 불꽃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 주는 이미지의 대비, 가끔은 비현실 같이 느껴지는 상황의 시각적 즐거움이다. 이는 마치 액션영화가 나에게 폭력성 보다는 시각적 쾌감만을 더 주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나는 이번 작업에서 최근 나의 주변 풍경과, 액션영화에서 채취한 캡처화면들을 이용해 작업을 구성해 나가보려 한다.

REVIEW with PHOTOS

제6회 PT & Critic 박윤삼 개인전 <국민>
Park Yunsam solo exhibition <A People>
2015. 10. 27 화 - 11. 15 일



아홉 '각하' 의 아카펠라 그룹은 무작위 박자에 맞춰 '국민' 이라고 흥얼거리고 있었다. 들리는 가사 '국민' 은 내 귀에 캔디만큼 달콤하게 들리진 않았다. 당연 박윤삼 작가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 그리고 우리의 '국민' 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듣는 이의 처지, 관심사 등 여러 상황이 포함된 상태에서 각자 해석될 것이다. 내 귀에 국민은 가난하고 부족한 '궁민(窮民)', 근심을 끝내고 싶어서 인지 '끝민(未憫)' 으로 들리곤 했다.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 1 | 오프닝 리셉션, 10월 27일
2 | 작품 <국민>
3 | 제 6회 PT & CRITIC, 11월 7일

박선민 개인전 <고속도로 기하학>
Park Sunmin solo exhibition <Highway Geometry>
2015. 9. 30 수 - 2015. 10. 20 화

선을 따라 계속 달렸어요. 고속도로를. 그러다 멈춘 곳은 곧거나 우거진 숲이었죠. 당신의 시선의 흐름을 따라가봤어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탐험하던 크거나 작은 풍경은 제 눈엔 벽처럼. 식물들 사이로 블라인드 케이크 피쉬가 보였어요. 해엄을치는지 춤을 추는지 그래서 나는 흥얼거렸죠. 어디선가 들어본 왈츠 같은 것을.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 1 | 작품 <왈츠 (Waltz)>
2 | 오프닝 리셉션, 10월 2일
3 | 아티스트 토크, 10월 17일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2

Ah-Bin Shim

9th Nov 2015 - 12th Feb 2016

심아빈 작가는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Hannah Maclure Centre 에서 <2> 개인전을 가집니다. 전시기간은 2015. 11.9~2016. 1.12 까지.



이수경, 손동현 작가는 경기도 박물관에서 열리는 <현대미술, 박물관에서 스며들다> 에 참여했습니다. 전시기간은 10.28~11.29 까지.

백경호, 홍승혜 작가는 일민미술관에서 열리는 <평면 탐구:유닛, 레이어, 노스탤지어> 에 참여합니다. 전시기간은 2015.11.27~2016.1.31 까지.



박경률, 이정엽, 이정형, 장종완, 추미림 작가는 옛 국제청 남대문 별관 부지에서 진행되는 <2015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55> 에 참여했습니다. 전시는 11.19~11.23 까지.

이정형 작가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0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오인환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과 SBS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허은경 작가는 대구 미술관에서 열리는 <애니마믹 비엔날레 2015-2016> 에 참여했습니다. 전시기간은 2015.10.27~2016.2.14 까지.

W&D NEWS

김인선 디렉터는 섬없는 긴 마라톤을 달리듯이 월딜 사훈인 <일 없을 때 일 나와>를 충실히 이행하며, 뭔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있는 중이다.

박윤삼 코디네이터는 자신의 첫 개인전 <국민>을 잘 마무리하며, 다음 행보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문에 부담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황수 코디네이터는 좋아하는 계절인 겨울이 연말에 있다는 것에 슬퍼하고 있다. "겨울이 7월이라면, 눈사람을 만드는 동시에 나이가 늘진 않겠지.."

이경아 인턴은 동덕여대 졸업을 앞두고 영국 진출을 위해 영국식 발음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박주원 윌링앤딜링 전 어시시스턴트 큐레이터는 국립 현대 미술관 학예사로 합격하였습니다.

오시는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 행: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박윤삼, 이경아, 한황수
감 수: 김인선
발행일: 2015년 11월 27일

EPILOGUE | 2015년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 못한 배우들의 올 겨울 당신의 마음을 녹여줄 추천 영화

